

에이즈와 함께하는 삶 '매직 존슨'

몇 년 동안의 추방생활 후에, 매직 존슨은 에이즈 감염자가 어떻게 세상에서 살 수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돌아왔다.

Earvin Johnson이 N.B.A에서 물러난지 4년 반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몸무게가 14킬로그램이나 더 불었지만, 그러나 매직은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예전의 그 모습 그대로 시합을 이끌어 나갔고, 결국 Golden State Warriors와의 시합에서 128대 118로 이기는 데 큰 몫을 해냈다.

정말 대단한 경기였다. 경기 기록도 매우 훌륭했지만, 무엇보다도 경기 도중에 내비친 그의 친진난만한 미소는 그날 밤 17,505명의 관중들을 더욱 흥분 시켰고, TV 중계를 보고 있는 3백만 시청자 가족들을 기쁘게 했으며, 특히 매직과 같이 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된 천구백만명의 사람들에게 커다란 용기를 불어 넣어 주었다. 315,000명의 독자층을 가지고 있는 격월 발행지인 'Poz'의 설립자이자 발행자인 Sean Strub는 다 음과 같이 말했다. "이번 일은 수많은 에이즈 환자나 에이즈 감염자들에게 더 이상 낙담하거나 포기할 필요가 없으며, 죽음이라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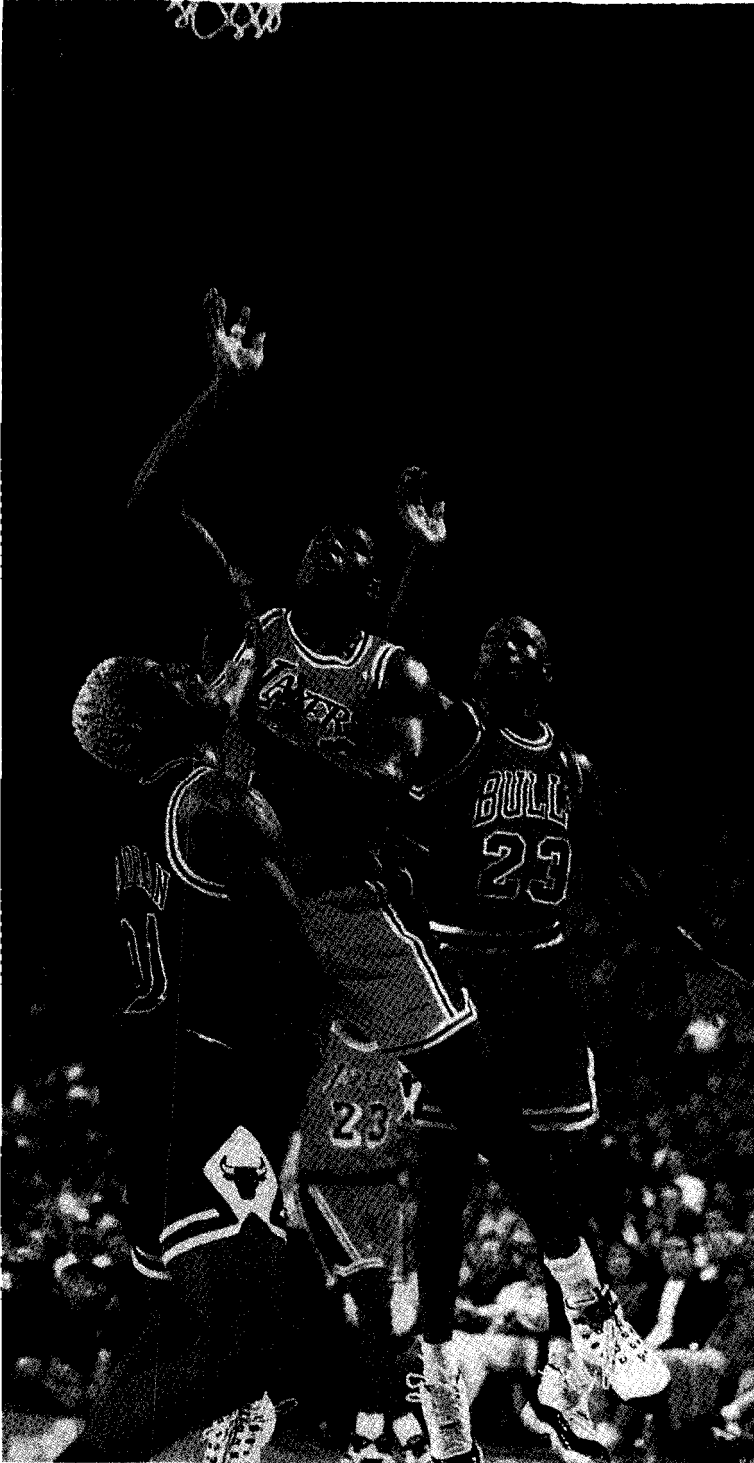
• 홀팀-부인 쿠키와 3살밖에 아들 어린 3세의 응원모습. 매직은 그의 전마농구대회(NBA) 모습을 아들이 볼 수 있도록 레이커스팀으로 복귀 하였다.

과대선전을 믿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도 삶을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지난 주 매직이 다시 선수 생활을 시작하였을 때 달콤쌉쌀한 기분이 들었다면, 그것은 지난날 그의 선수생활에서의 추방이 대단히 쓸데없는 것이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매직이 1991년 11월 7일 자신이 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는 사실을 공식 발표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매직이 지금 유언을 남기고 있다고 생각했다. 이후로 존슨은 곧 농구를 그

만 두어야만 했다. 아마도 자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의 동료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그는 92년 N.B.A 올스타전에 특별 출연하였고, 바로셀로나 올림픽에서 미국 국가 대표팀인 Dream Team의 선수로서 활약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가 92년 가을 다시 선수생활로 복귀하려고 하였으나 몇몇 그를 두려워 하는 N.B.A 농구 선수들 때문에 좌절되었다.

그러나 지난 4년간 에이즈에 관한 연구와 교육에 있어서 많은 일



• 스타워즈-시카고와의 금요일 경기. 폴스틸을 예상대로 쉽게 이겼으나, 매직은 로드맨과 맞붙었다. 플레이오프전에서는 조단(왼쪽)과 다시 맞붙을 것이다.

들이 일어났다. 3년 전 매직의 복귀를 반대한 선수 중의 하나인 Utah Jazz팀의 Karl Malone은 지난 주 이렇게 말했다. "그와 시합하는데 있어서 전혀 문제거리가 없습니다. 현재 우리는 에이즈에 관한 많은 지식을 알고 있습니다." Phoenix Suns의 Charles Barkley가 Malone에 이어서 보다 실제적인 표현을 사용했는데, "우리는 농구경기장에서 존슨과 위험한 성행위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말했다. (미국의 질병 관리 연구소의 보고에 의하면 농구선수가 경기 중 부딪혀서 에이즈에 감염될 확률은 8천 5백만명 중의 1명이 겨우 나올까 말까 할 정도로 적다.) 그러나 여전히 Philadelphia 76ers의 말쑥꾸러기 가드인 Vernon Maxwell처럼 그를 무시하고 거부하는 선수가 몇 명 있다.

그러나 사회의 그 밖의 사람들은 N.B.A에서 만큼 널리 에이즈에 관해 알고 있지 못하다. 미국에서는 에이즈로 죽은 Ryan White 어린이 사건에 충격을 받은 어린 학생들에게 에이즈에 관한 주의를 주기 위한 계획들은 안전한 성교나 그 밖의 것들에 관해서 대화하기를 꺼려하는 보수적인 학부모들로부터 심한 반발을 샀다. 80년대에 비해 에이즈 감염자와 환자에 대한 노골적인 차별대우는 많이

사라졌지만 여전히 그 오명은 남아 있다. 인색한 국회청문회에서는 지난주에 아무리 건강한 상태를 유지한다고 해도 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된 모든 군인들은 즉시 재대시키라고 국방부에 요구할 것을 결정했다. 클린턴 대통령은 이같은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 사항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러나 그는 에이즈라는 병이 마음에 걸린다고 했다. 그래서 미국 방성 대변인은 지난 주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매직 존슨이 다시 농구를 하겠다는 것을 TV를 통해 익히 알듯이 최근에 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도 보통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N.B.A 농구팀의 식이요법이 존슨을 약하게 하거나 에이즈 감염을 촉진시킨다는 것은 지나친 생각이다. 존슨의 주치의사이며 그의 건강상태를 처음부터 그에게 알려준 Michael Mellman박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여전히 얼마만큼 그가 견딜 수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Earvin을 위해서 예전의 일상적인 삶을 되돌려 주려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사와 환자 사이의 비밀 내용을 밝힘에 있어 Mellman은 존슨의 치료나 그의 최근의 건강상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지난주 타임지와와의 인터뷰에서, 존슨은 그가 예전에 인간의 T-세포의 수가 500까지 떨어질 때 사용되는 전형적인 AZT 약을 복용해 왔었다는 것을 인정했다. 그리고 그는 더이상 AZT약

“우리는 농구경기장에서 존슨과 위험한 성 행위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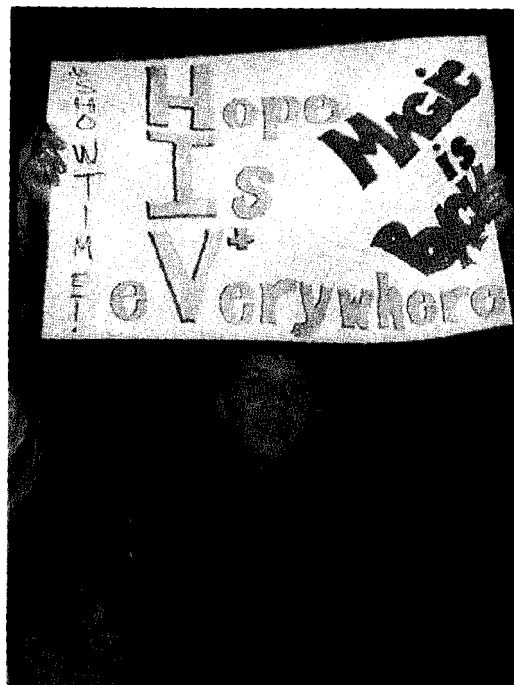
- Charles Barkley -

(농구선수가 경기중 부딪혀서 에이즈에 감염될 확률은 8천5백만명 중 1명이 겨우 나올까말까 할 정도로 적다-미국 질병관리 연구소)



“만약 당신 손에 상처라도 난다면, 당신은 금새라도 그의 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절대로 그곳에서 함께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서는 돌보아야 할 가족이 있기 때문이죠.”

- Vernon Maxwell -



• 희망은 모든 곳에 - 성 환물 이룬 포럼의 관중들이 경탄하고 공감하였다.

을 복용하지 않고 있으며, 그의 T-세포 수도 500을 넘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나는 그것에 관하여 자세히 밝히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이들이 그것에 대해 많은 얘기가 오고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건강에 대해서 “내 건강은 무척 좋습니다. 제 주치의사는 저에게 건강을 나쁘게 하는 기술은 자제하라고 말했습니다. 그것 이외엔 이제까지 아무 일도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의 몸무게는 심사숙고해서 제작된 약 치료법 때문이 아니라 성공적인 다이어트와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얻은 근육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많은 의사들이 그런것 처럼 Mellman 역시 바이러스를 몰아내는 최선의 방법은 긍정적인 마음 가지머라고 믿는다. 이런 점에서 존슨은 이상적인 환자이다. “처음에 그의 감염 상태는 매우 악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 상태를 이겨내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라고 Mellman박사는 말하고, “그러나 그는 모든 긍정적인 면만 보려고 하는 매우 낙천적인 사람입니다. Earvin과 함께라면 원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어 낼 것입니다. 그는 매우 정직하고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 생각엔 그가 무엇을 하던지간에 성공하는데 있어서 그의 성격이 큰 역할을 한 것입니다.”라고 덧붙인다. 존슨은 그가 감염 초기에 현재 돌아가신 에이즈 활동가인 Elizabeth Glaser라는 분이 그에게 많은 충고와 용기를 주었다

고 말한다. 그는 또한 에이즈에 감염된 어린이들을 방문하고 영감을 얻었다. “당신들은 이 아이들과 그밖에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싸워야 합니다. 감염된 경로는 다들 모르지만 우리는 결국 한 배에 탄 사람들입니다.”

존슨은 농구생활을 하지 않고도 지난 4년간 보람찬 삶을 살아왔다. 존슨은 에이즈에 대항하여 싸움에 있어서 모금과 관심을 일으키기 위해 세계 전역을 도는 농구단체를 조직하였다. 그전에 있어서 부시대통령이 그를 임명한 에이즈 위원회의 두번의 모임에 참석한 그를 인용하면서 존슨은 아직도 충분하지 않다고 비평하는 사람들도 있다. 왜냐하면 그의 대단한 인물됨이나 카리스마적 자질, 그리고 그가 수많은 안전하지 않은 성행위를 한 사실 때문에, 존슨은 아마도 누구에게든지 에이즈에 관한 공공교육을 시켰을 것이다.

경기장에서 존슨의 천부적 소질과 그의 기쁨을 보고 즐거워 하였던 농구팬들은 매직이 지난 4년간 동경하던 것을 이해할 수 있었다. “팬들은 그가 농구 경기를 하는 것은 자신을 죽일것이라고 말했다.”고 존슨은 말한다. 그러나 그는 “그렇지만 농구를 하지 않은 것이 나를 죽인 것이었습니다”라고 말한다. 그의 2.6미터의 덩치는 변했지만 그의 열정은 여전하다.

1992년 매직이 선수로 복귀하려 할 때의 그에 대한 반응과 비교해볼때, 존슨은 지금 더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 “당신이 보시다시피 사람들로부터 온 모든 편지들이나

전보들이 나를 기분 좋게 해 주었습니다. (이전에 레이커 코치였던)PAT RILEY는 나를 불러주었고, 나를 깨닫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매우 행복해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내가 그만 두어서는 안 된다고 말한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지난달 존슨은 경기의 반을 뛰는 조건으로 \$2,500,000에 계약에 서명을 하였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매직은 어떻게 AIDS를 피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표적인 인물이었다. 그리고 지금은 사람들이 AIDS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인간이다. 매직은 “인생을 즐겁게 살라” “나는 단지 HIV나 AIDS에 감염된 사람뿐만 아니라 문제나 장애 등을 가진 사람에게도 말합니다. 사시오! 이제 HIV 감염자들에게 말합니다. 숨기지 마세요. 그리고 당신의 삶을 누군가와 함께 나누세요. 그리고 그들이 보다 좋은 느낌을 갖게 하세요. 부모님 또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그러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세요. 사람들은 그들 자신 속에 고민을 간직하려고 하기 때문에 많은 부담을 자신의 탓으로 돌립니다. 그리고 당신이 스스로 고민을 가지고 있을때, 당신은 많은 부담을 갖습니다.”라고 말한다. 매직이 세상을 깨닫게 한 것처럼 남은 시간은 그 시간에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비하면 그리 중요하지 않다. **A**

(1996. 2. 12, Time지 발췌 번역)